

# 마태 22

- 1. 혼인 잔치 비유.....1
- 2.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.....3
- 3.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.....4
- 4. 가장 큰 명령.....6
- 5.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.....7

## 1. 혼인 잔치 비유

(마 22:1) 예수님께서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,  
 (마 22:2)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.  
 (마 22:3)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 
 (마 22:4)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,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, 보라,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, 하라, 하였으나  
 (마 22:5)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 
 (마 22:6)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.  
 (마 22:7)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 
 (마 22:8)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,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 
 (마 22:9) 그런즉 너희는 큰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 잔치에 초대하라, 하매  
 (마 22:10) 이에 그 종들이 큰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.  
 (마 22:11) ¶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

(눅 14:15)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의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, [하나님]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, 하매  
 (눅 14:16)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 
 (눅 14:17)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, 오라,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, 하매  
 (눅 14:18)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,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, 하고  
 (눅 14:19) 다른 사람은 이르되,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, 하며  
 (눅 14:20)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,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, 하므로  
 (눅 14:21)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리매 그때에 집 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,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, 하니라.  
 (눅 14:22) 그 종이 이르기를, 주인이여,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, 하니  
 (눅 14:23)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,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.

(마 22:12) 그에게 이르되, 친구여,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?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

(마 22:13)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,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.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갚이 있으리라, 하니라.

(마 22:14)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, 하시니라

(눅 14:24)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, 하였느니라, 하시니라.

## 2.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

(마 22:15) ¶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 
 (마 22:16)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, 선생님이며,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[하나님]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.  
 (마 22:17)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?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.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, 맞지 않나이까? 하거늘  
 (마 22:18)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, 너희 위선자들아,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?  
 (마 22:19)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,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 
 (마 22:20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? 하시니  
 (마 22:21)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,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, [하나님]의 것들은 [하나님]께 바치라, 하시니  
 (마 22:22)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.

(막 12:13)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로 그분을 붙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의 어떤 자들을 그분께 보내매

(막 12:14) 그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, 선생님이며,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[하나님]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.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, 맞지 않나이까?

(막 12:15) 우리가 바치리이까, 바치지 말리이까?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?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, 하시매

(막 12:16)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?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, 하매

(막 12:17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, [하나님]의 것들은 [하나님]께 바치라, 하시니 그들이 그분으로 인해 놀라니라.

(눅 20:20)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그분을 넘겨주려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게 하니

(눅 20:21)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, 선생님이며,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[하나님]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.

(눅 20:22)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, 맞지 않나이까? 하거늘

(눅 20:23) 그분께서 그들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?

(눅 20:24)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. 그것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?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,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, 하매

(눅 20:25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, [하나님]의 것들은 [하나님]께 바치라, 하시니

(눅 20:26)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니라.

### 3.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

(마 22:23) ¶ 바로 그 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

(마 22:24) 이르되, 선생님이여, 모세는 이르기를,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, 하였나이다.

(마 22:25) 이제 우리에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

(마 22:26)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

(마 22:27)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.

(마 22:28)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일곱 사람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? 하매

(마 22:29)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,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[하나님]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.

(마 22:30)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[하나님]의 천사들과 같으니라.

(마 22:31)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[하나님]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? 이르시되,

(마 22:32) 나는 아브라함의 [하나님]이요, 이삭의 [하나님]이요, 야곱의 [하나님]이니라, 하셨으니 [하나님]은 죽은 자의 [하나님]이 아니요, 산 자의 [하나님]이시니라, 하시매

(마 22:33)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.

(막 12:18) 그때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,

(막 12:19) 선생님이여,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,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자기 뒤로 아내를 남기고 아이를 남기지 아니하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해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, 하였나이다.

(막 12:20) 이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고

(막 12:21)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역시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 셋째도 그렇게 하여

(막 12:22)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아무 씨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.

(막 12:23)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? 하매

(막 12:24)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[하나님]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지 아니하느냐?

(막 12:25)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.

(막 12:26)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[하나님]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되, 나는 아브라함의 [하나님]이요, 이삭의 [하나님]이요, 야곱의 [하나님]이니라,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

(눅 20:27) 그때에 부활이 있음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물어

(눅 20:28) 이르되, 선생님이여,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, 어떤 사람의 형이 죽되 아내를 둔 채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, 하였나이다.

(눅 20:29) 그러므로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고

(눅 20:30) 둘째도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아이 없이 죽었으며

(눅 20:31)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일곱이 또한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

아이를 남기지 아니한 채 죽었으며

(눅 20:32)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.

(눅 20:33) 그런즉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? 하매

(눅 20:34)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

(눅 20:35)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

(눅 20:36)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[하나님]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.

(눅 20:37)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친히 [주]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[하나님]이요, 이삭의 [하나님]이요, 야

냐?

(막 12:27) 그분은 죽은 자의 [하나님]이 아니요, 산 자의 [하나님]이시니라. 그런즉 너희가 크게 잘못하는도다, 하시니라.

굽의 [하나님]이라 부르며 보여 주었나니

(눅 20:38) 그분은 죽은 자의 [하나님]이 아니요, 산 자의 [하나님]이시니라.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해 사느니라, 하시니라.

(눅 20:39) ¶ 그때에 서기관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, 선생님이여, 잘 말씀하셨나이다, 하니라.

(눅 20:40) 그 뒤로는 그들이 감히 그분께 더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.

### 4. 가장 큰 명령

(마 22:34) ¶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 
 (마 22:35) 그때에 그들 중의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,  
 (마 22:36) 선생님이여,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이까? 하매  
 (마 22:37)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[주] 네 [하나님]을 사랑하라.  
 (마 22:38)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,  
 (마 22:39)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,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, 이니라.  
 (마 22:40)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12:28) 서기관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들이 함께 논쟁하는 것을 듣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와 그분께 여쭙되,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이니이까? 하매  
 (막 12:29)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,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, 오 이스라엘아, 들으라. [주] 우리 [하나님]은 한 [주]시니  
 (막 12:30)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[주] 네 [하나님]을 사랑하라, 이니라.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.  
 (막 12:31)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,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, 이니라.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, 하시매  
 (막 12:32)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, 옳소이다. 선생님이여, 한 [하나님]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.  
 (막 12:33) 또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 헌물과 희생물보다 더 나으니이다, 하매  
 (막 12:34) 예수님께서 그가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, 네가 [하나님]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,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.

(눅 10:25) 보라,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, 선생님이여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이까? 하매  
 (눅 10:26)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율법에 무어라 기록되어 있느냐? 너는 어떻게 읽느냐? 하시니  
 (눅 10:27)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,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[주] 네 [하나님]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, 하였나이다, 하매  
 (눅 10:28)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,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. 이것을 행하라.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, 하시니라.

### 5.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

(마 22:41) ¶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

(마 22:42) 이르시되,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?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?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, 다윗의 자손이라, 하니

(마 22:4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[주]라 부르며 이르되,

(마 22:44) {주}께서 내 [주]께 말씀하시기를,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, 하셨도다, 하느냐?

(마 22:45) 그러면 다윗이 그를 [주]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? 하시니

(마 22:46) 아무도 능히 한 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.

(막 12:35)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,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?

(막 12:36) 다윗이 [성령님]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, {주}께서 내 [주]께 말씀하시기를,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, 하셨도다, 하였느니라.

(막 12:37)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[주]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?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.

(눅 20:41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?

(눅 20:42)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, {주}께서 내 [주]께 말씀하시기를,

(눅 20:43)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, 하셨도다, 하느니라.

(눅 20:44)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[주]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? 하시니라.